

GT  
GLOBAL TECH KOREA Industrial Technology & Market Review  
**글로벌 산업기술·시장동향**

**아세안·인도 산업·에너지 동향**  
(10월 2주 주요 News Clipping)







## ▶ CONTENTS

### I. 에너지 동향

1. 라오스,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 (9.18)
2.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 (9.16)

### II. 산업 동향

1. 베트남 타이빈성, 내년 대규모 자동차 공장 설립 발표 (9.19)
2. 베트남, 테크 대기업 국내 최초 반도체칩 출시 (9.29)

### III. FDI 및 협력 동향

1. 한·인도네시아 교역 강화 합의 (9.21)
2. 인도 국가물류정책 발표 (9.28)

# I

## 에너지 동향

### 1. 라오스,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 (9.18)

- ❖ 라오스 정부와 관련 에너지 회사들은 Savannakhet성 Sepon구 Lako 지역의 풍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
- ❖ 기획투자부 Sathabandith Insisiengmay 차관, Savan Vayu Renewable회사와 LTM Lao회사가 동 지역의 풍력 발전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를 위한 MOU를 체결함
- ❖ 풍력 발전소는 설치 용량이 1,200 메가와트로 2025년 말 완공될 예상
- ❖ 전력은 풍력으로 생산되어 국내에서 소비될 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베트남으로 수출될 예정
- ❖ 이번 MOU의 이행은 2016년에 시행된 에너지 분야에서 베트남과의 협력과제의 일부이며 베트남에 전력을 판매하여 매년 6억 달러 이상의 배당금을 산출하는 라오스에서 지열 발전을 생성하는 또 다른 재생 에너지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2.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 (9.16)

- ❖ 인도네시아가 일부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 계획을 포함하여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발표
- ❖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2025년까지 에너지 조합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23%로 증가시킬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까지 약 12%에 달하며, 석탄은 현재 국가 전력 수요의 약 60%를 공급하는 상황
- ❖ 인도네시아는 작년 206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고 타 국가들과 함께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미만으로 제한하는 목표를 세움
- ❖ 이번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석탄 발전소 건축은 더 이상 허가하지 않지만 이미 운영 중인 석탄 발전소와 천연 자원 처리 산업과 통합된 발전소는 계획대로 진행 가능
- ❖ 그러나 신규 석탄 발전소의 배출량은 2021년 평균 석탄 발전소 배출량과 비교하여 운영 10년 이내에 35% 감소시키는 의무가 있으며 2050년까지만 운영한다고 규정
- ❖ 인도네시아 정부가 또한 지열, 수력과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가격 책정 체계를 마련하여 이전에 개발자가 가격 계약에 도달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들과 긴 협상을 진행한 장애를 완화함
- ❖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 시설과 산림 지역의 인허가 용이성을 포함한 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

## II

## 산업 동향

### 1. 베트남 타이빈성, 내년 대규모 자동차 공장 설립 발표 (9.19)

- ❖ 11조 8000억 동 (8억 달러)규모의 자동차 제조와 조립 공장이 내년에 타이빈(Thai Binh)성의 띠엔하이(Tien Hai) 산업단지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보도
- ❖ 하노이 출신 베트남 Geleximco 그룹이 자금을 지원하는 동 공장은 두 단계로 개발되며, 2023년 1분기에 7조 동 규모인 첫 번째 단계로 시작될 계획
- ❖ 공장의 1단계는 2024년 3분기에 가동될 예정이며 약 1,200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가동될 예정인 2단계에서 동 공장은 2,500~3,000명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 Geleximco에 따르면 동 공장은 유럽 고급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힘
- ❖ 동 시설은 전기차,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를 생산해 자동차 제조사와 조립업체에 공급할 목표를 세움
- ❖ 지난주, Geleximco그룹은 Viglacera 그룹과 공장 건설을 준비하기 위해 띠엔하이 산업단지의 50ha의 부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

## 2. 베트남 테크 대기업 국내 최초 반도체칩 출시 (9.29)

- ❖ 베트남 기술 대기업 FPT의 자회사인 FPT반도체 (FPT Semiconductor)회사가 의료 장비용으로 사용될 집적 회로(IC) 칩의 첫 번째 라인을 공식 출시하며, 이는 베트남 제품을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산업과 보다 가까이 만들 단계로 보임
- ❖ FPT 반도체는 2022년 8월 베트남에서 설계되어 한국에서 제조된 최초의 IC 칩을 사물 인터넷(IoT) 의료 기기에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출시한다고 9월 28일에 보도 자료에서 발표
- ❖ FPT 반도체는 현재 'Make-in-Vietnam' 칩을 호주, 대만과 중국 본토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하는 중
- ❖ 또한 내년까지 일본, 대만, 중국과 미국을 핵심 시장으로 정하여 통신, IoT, 자동차 기술, 에너지, 전자 제품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2,500만 개의 칩을 공급할 계획을 추진
- ❖ FPT는 해외 시장에 'Make-in-Vietnam' 칩을 제공하는 것 이외 베트남 기업의 선도적인 공급업체가 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며, 이는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제조 장비가 필요한 베트남 기업을 위한 공급망을 완성하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Nguyen Vinh Quang은 "FPT가 만든 베트남에서 만든 칩"이라는 모토로 일본, 한국, 대만, 미국, 유럽, 중국 등 국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칩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고 있다고 FPT반도체 대표이사인 Nguyen Vinh Quang은 선언

## 1. 한·인도네시아 교역 강화 합의 (9.21)

- ❖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과 안덕근 한국 통상자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무역을 확대하기로 합의
- ❖ 양국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K-CEPA), 지역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네시아 G20 정상 회담 및 글로벌 공급망 협력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포함하여 양자, 지역과 글로벌 포럼에서 다수의 무역과 경제 문제를 논의함
- ❖ 인도네시아 정부와 하원은 2022년 8월 30일 IK-CEPA와 RCEP에 관한 법률 초안(RUU)을 비준하였으며,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두 개의 무역 협정 시행을 위한 제도와 기술 규정을 준비 중
- ❖ 양국의 무역 관계가 2022년 9월 23일 인도네시아와 한국 기업 관계자가 3건의 무역 계약을 체결함을 통해 더욱 긴밀해지며 수요가 많은 인도네시아 상품은 카사바, 포랑, 감자 제품인 것으로 조사됨
- 2022년 1~7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한국과의 교역액은 140억3000만 달러로 기록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대 한국 수출액은 72억7000만 달러, 수입액은 67억7000만 달러로 기록
- 2021년도의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총 교역액은 184억1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수출액은 89억 달러, 수입액은 94억 달러에 도달



- ❖ 이로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7번째 수출국이자 6번째 수입국이 되는 한편, 2021년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액은 2511개 프로젝트에 16억4000만 달러로 기록되어 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7위 국가가 된 것으로 달함

## 2 인도 국가물류정책 발표 (9.28)

- ❖ 2022년 9월 21일, 인도 연합 내각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인도 물류 산업 개발을 위해 학제간, 분야 간, 다관할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국가 물류 정책(NLP)을 승인하였으며, 동 정책은 2025년까지 5조 달러 규모의 경제가 되기 위해 인도의 핵심인 기술, 공정과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통합하는 정책안으로 보임
- ❖ 국가 물류 정책은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통합 인프라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PM GatiShakti 국가 마스터 플랜과 함께 추진
- ❖ 물류 시설에는 화물 운송을 위한 운송 서비스, 식품·과일·야채와 같은 부패하기 쉬운 상품의 거래에 특히 중요한 저장 시설, 허가 관세와 같은 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정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이 포함
- ❖ 주요 목표
  - 2030년까지 인도의 물류비용을 세계 평균인 8%와 비교 가능하도록 절감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순위 개선, 2030년까지 25위권 진입 목표
  - 효율적인 물류 생태계를 위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제도 구축
- ❖ 네 가지의 주요 결과물
  - ① 디지털 시스템(IDS) 통합: IDS는 7개 부서에 속한 30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을

포함하며 도로 운송, 철도, 세관, 항공과 상업 부서의 데이터를 통합

- ② 통합 물류 인터페이스 플랫폼 (ULIP): 동 플랫폼은 단일 웹사이트 포털에 모든 운송 관련 디지털 서비스를 통합
- ③ 물류 단순화(e-log): E-log는 등록, 조정과 시간제한 문제 해결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산업 부서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 대시보드로 여기에 타임라인과 해결 상태 조회가 가능하며 업계 협회들이 우려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에 직접 연락 가능
- ④ 시스템 개선 그룹(SIG): 동 그룹은 네트워크 계획 그룹(NPG)과 함께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됨

❖ 실행 계획: 다음 조치를 제안하는 포괄적인 물류 실행 계획(CLAP)을 통해 이행

- 디지털 물류 시스템 통합
- 효율적인 물류를 위한 분야별 계획(SPEL)
- 물류단지 조성 촉진
- EXIM(수출입)물류
- 물류인력 역량개발과 역량강화
- 서비스 개선 프레임워크
- 물리적 자산 표준화 및 서비스 품질 기준 벤치마킹
- 인도의 여러 주 정부들과의 교류

## 글로벌 산업기술·시장동향

아세안·인도 산업에너지 동향 News Clipping (10월2주)

---

발행일 | 2022년 10월

작성자 | 베트남 거점 이재민 소장 (jmlee@kiat.or.kr)

문의처 | KIAT 국제협력기획팀 (jskim11@kiat.or.kr)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본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문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자료는 GT온라인 홈페이지(www.gtonline.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GT** Industrial Technology & Market Review  
GLOBAL TECH KOREA  
**글로벌 산업기술·시장동향**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국 워싱턴 D.C. 거점  
 김은정 소장



KIAT  
 유럽 벨기에 거점  
 강주석 소장



KIAT  
 베트남 하노이 거점  
 이재민 소장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국 실리콘밸리 거점  
 박성환 소장



KEIT  
 유럽 독일 거점  
 박효준 소장



KORIL(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유럽 이스라엘 거점  
 최수명 소장

